

+ 김광호 ·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IPTV의 현황과 향후 전개방향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후, 기존 방송통신업계의 침체를 타개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IPTV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IPTV 서비스를 상용화시킨 것은 2008년 9월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사업자로 KT의 '메가TV', SK브로드밴드의 'Broad&TV', LG데이콤의 'myLGtv'를 당시 선정하여 발표했다.

IPTV 업계에서는 KT의 '메가TV'가 최초로 지상파방송사와 '선송출, 후 정산' 방식으로 실시간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합의하고, 지난 2008년 11월 17일부터 IPTV에서 실시간 지상파방송을 제공함에 따라 본격적인 상용화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2일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사업자가 IPTV 개국식을 통하여 상용화를 공식 천명했다.

또한, IPTV는 지난 1월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생중계가 가능해지면서 실제적인 방송이 이뤄졌다.

IPTV의 상품구성을 보면 상용화 이전에는 VOD+PPV와 같이 단순한 형태였으나 현재는 크게 기본상품, 선택상품, 부가서비스 등과 같은 형태로 분화되어 있다.

한편, 결합상품 역시 기업 간 상생을 목적으로 M&A와 제휴를 단행, 다양한 형태의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QPS(IPTV+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이동전화)뿐만 아니라 WiBro(HSDPA), 인터넷 전용 전화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IPTV 사업자들은 통상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유아/어린이, 교육, 스포츠, 종교, 취미/레저 등의 콘텐츠를 CP(Content Provider)로부터 판권(라이선스)구매 방식으로 수급 받는다. 이 밖에 영화제작사, 주요 MPP에 대한 투자 또는 지분참여 방식으로 콘텐츠 수급 전략을 세우고 있다.

IPTV 3사가 집계한 실시간 가입자 수가 2009년 10월 9일 100만명을 돌파했고(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 협회 보도자료), 그 이후 지난 11월 2일 기준 실시간 IPTV 가입자 수는 123만명, 프리-IPTV 가입자 (VoD)는 86만명으로 이미 실시간 방송 가입자가 VOD 중심의 프리 IPTV 가입자를 넘어선 상태이며, 합할 경우 IPTV 가입자 수는 209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IPTV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서비스 불만 등에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는 ①IPTV에서만 접할 수 있는 간판 인기 프로그램이 없다. ②유선 케이블 방송에는 방영되는데 IPTV 에는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③화면 끊김이나 리모컨이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④사용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기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리모컨 조작성을 많이 해야 해서 전기-전자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한다. ⑤월 수신료 이외 지상파 방송 드라마나 영화 등 인기 프 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경우 추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신동아 2009.4)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명 IPTV법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1일 관보게재를 거쳐 공식 발효됐다. IPTV법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 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한편, 개정 방송법은 대기업 또는 신문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 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는 모두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또 는 신문은 케이블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30%까지 소유할 수 있 다. 하지만,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편 또는 보도 PP에 대한 지분은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제한과 관련해 개정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이 서로 엇갈린 내용을 담고 있다.

광대역 시청각 서비스로 IPTV와 디지털 케이블은 유사 서비스로 볼 수 있고, 둘 사이에 대체성이 존재 한다는 점에서 향후 IPTV 서비스와 케이블TV의 균형적 규제를 위한 수평 규제 체제 도입에 대한 논란 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IPTV는 콘텐츠의 확대 및 다양화, 전송로의 다양화, 단말의 다양화, 서비스형태의 다양화 및 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 발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진다.